

北, 3차 핵실험 강행

1·2차 핵실험 때보다 강도 커 국제사회 대북제재 논의 착수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2일 3차 핵실험을 끝내 강행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시 '중대조치'를 예고해 왔던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과 이에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초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

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했다"고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다.

특히 북한은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언급,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N)을 이용한 핵실험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2009년 5월 25일 이후 3년 8개월만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규모 4.9의 지진을 핵폭탄으로 환산하면 (폭발력) 6~7kt (킬로톤)으



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파괴력은 1차 핵실험 (진도 3.6에 파괴력 1kt)이나 2차 핵실험 (진도 4.5에 파괴력 2~6kt)보다 신장된 것이다. 6~7kt의 파괴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 위력 (16kt)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NSC 회의 후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응답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안보리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엔은 12일 오전 9시 (한국시간은 12일 오후 11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 대북조치 논의에 착수한다. 2월 안보리 의장국은 우리나라다.

안보리는 긴급회의 직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뒤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돌담밭' 내달 세계농업유산 신청

각계 전문가 TF팀 가동 등재신청 제안서 작성 경제·농업생산·역사문화·경관적 가치 등 총괄 3월 세계농업기구에 신청서 제출·5월에 발표

제주의 상징 중 하나인 '돌담밭'이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본보 1월 21일자 1면)된 것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위한 후속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을 유엔식량농업기구 (FAO)가 주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위한 전문가 TF팀을 구성·가동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했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박사를 총괄 책임자로 하는 TF팀은 밭담 가치와 농업생산, 경제분야, 생태적 가치, 토목공학적 가치, 역사·문화성, 경관적 가치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다.

현재 중국의 푸에 톤 차 농업, 밭담 FAO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일본에서 열리는 포럼 때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가 이달말쯤 제주 현장답사와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토대로 신청서를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또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0억5000만원)와 지방비 (4억5000만원) 등 15억원을 투입해 돌담밭 정비 개발과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이와관련 가

칭 '농어촌 다원적자원 보전관리법'을 연내 제정 목표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제주자치도는 보존·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제주밭담·돌담의 전수조사, 장인 지정·육성, 시범지역 지정, 전통농법·친환경농업, 단계별 관리시스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의 푸에 톤 차 농업, 일본의 사도 따오기 공생농법 등 11국 19개 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19국 31개소가 후보목록에 올라 있다.

총괄 책임자인 강승진 박사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는 "우선 등재 신청을 위한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수정·보완을 거쳐 등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시영기자 sykang@ihalla.com



대응책 논의하는 **李 대통령과 朴 당선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오후 이명박 (오른쪽) 대통령과 박근혜 (왼쪽)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李 대통령-朴 당선인 "흔들림없는 대북정책 견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정권 이양기에 흔들림없는 대북정책을 견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3분간 청와대 백악실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이같

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했다. 두 사

람은 또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게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돼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동은 정권교체를 틈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안보 공백' 사태를 차

단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핵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합뉴스

도내 관광숙박시설 신축 폭증

올해 1월에만 20개소 1200여실 신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광숙박시설을 짓겠다는 사업계획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신청은 91개소 6235실로, 2011년 (28개소 1425실)에 비해 객실수 대비 3.4배 증가했다. 숙박시설별로 보면 관광호텔은 2011년 3개소 409실에서 2012년 28개소 3511실로 크게 늘었다.

가족호텔도 2011년 8개소 356실에서 2012년 19개소 1192실, 호스텔도 2011년 15개소 342실에서 2012년 41개소 982실로 늘어나는 등 중·소규모 숙박시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내 관광숙박시설은 총 143개소 1만3956

실로, 이 중 서귀포시 지역은 62개소 5799실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 1월 중 관광숙박업 사업 승인신청도 20개소 1221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이 관광숙박업 사업 승인신청이 증가한 원인으로 관광진흥기금 확대 지원과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응징 및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외국인와 단체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객실수 확충에서 벗어나 고급형 관광호텔 확충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관

광숙박시설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분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 지원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가족호텔과 호스텔 등 중·소규모 숙박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별 관광객 등 수요에 따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숙박시설 신규사업 예정자는 사업계획 신청시 신중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영석기자 yswi@ihalla.co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20904-증-32084호

김앤김 신경외과

Kim & Kim's Neurosurgical Clinic

비수술적 치료 뇌/척추/관절/디스크

진료안내

척추, 디스크 클리닉
 요통, 좌골신경통, 허리 목디스크, 척추협착증, 척추수술후 통증,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통증클리닉
 편두통, 대상포진후 통증, 근육통증후군, 만성통증, 안면마비증

관절클리닉
 오십견, 어깨동증, 테니스엘보, 손발저림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퇴행성 관절염, 턱관절증

스포츠 손상 클리닉 : 근육통, 염좌

뇌졸중 클리닉 : 두통, 뇌출혈 및 뇌경색 후유증, 고혈압

치료안내

- 경피적 경막의 신경성형술(Neurolasty)
- 경피적 고주파 플라즈마 디스크제거술(L-disQ)
- Fims 치료술
- 체외 충격파 치료술(ESWT)
- 근골격 초음파 진단 및 치료
- 근육내 자극치료(MS)
- 프롤로 테라피(인대강화주사)
- 신경 프롤로 테라피(신경 강화주사)

척추 통증치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허리디스크! 수술만이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허리디스크는 수술후에도 재발위험이 높아 가능한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디스크로 인한 신경통증은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경피적 경막의 신경성형술**로 치료하세요.

경피적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란
 경피적 경막의 신경 성형술은 꼬리뼈의 작은 구멍을 통해 척추의 경막의강에 1mm의 소형 카테타를 삽입하여 병소부위의 유착을 박리하고 특수약물을 사용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주부, 직장인, 학생 또는 운동을 즐겨하시는 중증도 이하의 디스크 환자 분에게 유용합니다. 치료중 컴퓨터 영상촬영 장치를 사용하여 시술 부위를 직접보면서 병소가 있는 곳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시술할수 있고 흉터는 거의 없습니다. 20~30분 정도의 시술시간으로 당일 혹은 하루정도의 입원으로 시술 가능하며 치료 후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심장병, 골다공증 환자에게도 큰 부작용없이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물게 시술부위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일시적인 두통 및 안면홍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막의 신경 성형술의 치료대상
 경막의 신경 성형술은 수술로 자리를 오랫동안 비울 수없는 직장인이나 가사일로 시간을 내기 힘든 가정주부, 경기를 준비중인 운동선수, 짧은 휴가기간중 치료를 원하는 군인, 시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학생들에게도 시술후 짧은 시간의 안정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세요.

다중채널 전신 전산화 단층촬영장치(MD 3D CT) 가동
근골격계 초음파, 컴퓨터 영상 촬영 장치(C-arm)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노형동 977-1) 세기빌딩 6층 **김앤김 신경외과**

예약문의 T. 064) 713-2500 F. 064) 713-4243

찾아오시는 길
 노형타워 롯데시네마, 노형로타리, 세기빌딩 6층